

붕어섬 생태공원 임시 휴장 순창군, 관광정책 빛났다

임실군, 21일~9월 1일 붕어섬 다목적 광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9월 2일 재개장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40여 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군은 붕어섬 다목적 광장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장을 결정했다.

임시 휴장 기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 작업을 병행하여 오는 9월 2일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옥정호 출렁다리는 올해 3월 1일 재개장한 이후 6월 말까지 25만여 명의 유료 입장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 7,564명을 넘는 통계이자, 2022년 10월 임시 개통 이후 2023년 같은 기간 17만 5,243명을 크게 뛰어넘어 개통 후 가장 많은 입장객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한 달간 무료 개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3월부터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40여 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유료 개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방문객은 더욱 증가, 올해는 전년도 총방문객 수인 40만여 명의 수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은 이용객들에게

거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야 한다”며 “이번 임시 휴장은 이용객의 안전과 더 나은 시설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에서 청년들이 삶을 피우는 집’

남원시, 피움하우스 입주자 21일~8월 14일 모집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에서 청년들이 삶을 피우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남원형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브랜드로, 시는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 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주거복지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한 단독주택 3세대와 구 대전방직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다가구주택 8세대 등 총 11세대로, 입주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전입이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입주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은의 남원시 기획예산과(063-620-6092)로 하면 된다.

입주자는 월 1만 원 사용료(보증금 100만원)를 연납하고,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하고, 기본 임대료, 냉방과,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옵션은 무상 지원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벼 병해충 선제 대응 총력

순창군이 본격적인 벼 생육기를 맞아 벼멸구와 도열병 등 주요 벼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벼병해충 예찰과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벼병해충 발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차단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대응 조치다.



군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를 ‘벼멸구 중점 예찰기간’으로 정하고, 작물기술팀과 11개 농업인상담소장을 중심으로 예찰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예찰과 방제 지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찰반은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통해 초기 발생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작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벼병해충이 집중 발생하는 7~8월 동안 지역농협과 협력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 읍·면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방제기를 보유한 농가들을 위해 별도의 약제 지원사업도 병행해 방제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 선정

순창군이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주관한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정책의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순창군은 올해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며 위상을 높였다.

이번 수상에서 순창군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장 문화를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혁신성 △실행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순창군은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출범한 순창발효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된 발효문화관광마케팅 사업은 장류 테마 축제, 브랜드 굿즈 개발, 디지털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통 장문화를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와함께, 순창 떡볶이 페스타, 청년대상 온라인 캠페인 등 젊은 층을 겨



냥한 콘텐츠도 돋보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동시에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순창군과 관광재단, 지역사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실행 기반을 공고히 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체계적 추진은 행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전통 장류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 가치를 만들어낸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순창만의 고유 자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노인복지관서 우유팩 업사이클링 필통·지갑 전달

남원시는 15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우유팩 업사이클링 필통·지갑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환경 보호, 자원순환 실천과 이웃과의 정서적 나눔을 목적으로 (사)전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작은 실천의 의미를 배우는 환경교육으로 시작해 수거한 우유팩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해 필통과 지갑



120세트를 만드는 실습까지 진행했다.

완성된 필통과 지갑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한글 교실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읍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 상담 나서

임실읍이 지난 14일 복지이점의 발굴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했다.

새로 설치된 맞춤형복지팀은 방문상담 사전 예약을 하고, 전기·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연계, 긴급복지지원, 돌봄 서비스 점검 등 필요한 복지제도를 꼼꼼히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했다.

이 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김모씨, 67)과 장애인이 있어 평소 외부 활동이 어려웠다. 복지이점은 평소 마을



을 돌며 이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읍사무소에 알렸고, 이를 토대로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